

'특혜 시비' 나주 부영골프장 대규모 아파트 건립 '제동'

부영그룹, 용도·용적률 등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 요구
나주시의회, '꿈수 기부' 논란에 의견청취 보이콧 결정

부영그룹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
채납 후 남은 빛가람(나주)혁신도시 내 부
영CC(골프장) 잔여지에 추진하려는 대규
모 아파트 신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나주시의회가 부영 측이 접수한 '도시
관리계획 입안서' 의견청취를 보이콧 하
고 안전 상정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결정했
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담
은 입안서를 만들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받
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절차 진행은 무기
한 연기된다.

부영그룹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 입안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 구성·의견 청취'→'전략적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조안 작성'→'관계기관(부
서) 협의'→'신문 등의 공고를 거친 후 주
민설명회 개최·의견 청취'→'나주시의회
안전 상정 의견청취'→'나주시 도시계획
자문위 상정'→'전남도 도시계획관리위원
회 결정 신청' 등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변
경은 빠르면 8개월 이내, 길게는 최장 5년
이 소요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회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타 주
택건설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부영그룹이
'주택사업 특혜를 전제로 꿈수 기부'를 했

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공공성 강화를 요구
하며 의견 청취 보이콧 결정을 했다.

특혜 시비는 부영그룹이 지난달 28일 학
교법인 한전공대에 부영CC 전체 부지(75
만3586㎡)의 53%에 해당하는 40만㎡를 캠
퍼스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잔여지
35만3586㎡에 28층 아파트 5328가구 신축
을 추진하면서 부터다.

여기에 부영그룹은 나주시를 상대로 용
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위한 '도
시관리계획 변경'을 처음 협의하는 과정
에서 법적 의무 기반 시설인 '초등학교·
유치원' 설립계획 조차 반영하지 않아 이
의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
면하기도 했다.

쟁점은 나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부영
CC 잔여 체육시설 부지를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구'로 변경하고, 평균
보다 약 5% 높은 '179.94%'까지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대폭 높이
는 것이다.

용적률과 관련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는 아파트 층수는 28층으로 타 건설
사가 공급한 25층 아파트와도 형평성 측면
에서 비교가 된다.

이처럼 특혜 시비가 커지자 나주시의회
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사전협
상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



한전공대 조감도

진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만 적용
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추진을 중단했
다.

시의회는 사전협상제도 추진이 무산되
자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서' 의견
청취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와 향후 부영
그룹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덕 나주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앞서 간담회에서 밝힌듯이 부영그룹 측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

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 의견청취
와 이와 관련된 안전 상정을 무기한 연기
하기로 한 방침을 결코 변경하지 않을 것
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골프장 잔여지에 아파트를 신
축할 경우 사라지는 녹지공간을 대체할 복
합체육시설 신축과 유치원, 초·중·고교
건립부지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공공성 기여 확대 목소리는 부
영그룹이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

부터 골프장 부지 75만 3586㎡(22만
7959.765평)를 451여억원에 매입한 후 배
로 상승한 자산 가치 때문이다.

골프장 부지는 당시 3.3㎡(평)당 매입
가격이 19만7000여원이었지만 현재 감정
가 시세는 이보다 3.4배 높은 66만6000여
원에 달한다.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신
축할 경우 이익은 수천억원 대를 웃돌 것
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본부

광주 쌍둥이 신생아, 국내 첫 선천성 결핵...“매우 드문 사례”

광주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이란성 쌍둥이 환아 2명이 선천성 결핵으
로 신고돼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산모 결핵 진단 후 이란성 쌍둥이도 진단판정
정은경 “신생아실 예방 조치·역학조사 진행”

방역당국은 쌍둥이 환아들이 산모와 분
리돼 중환자실이나 인큐베이터에서 지낸
만큼 선천성 결핵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 결핵 조사 시작 이후 선천성 결
핵이 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
으로도 350건 정도로 드문 사례다.

광주시에 따르면 신생아의 산모가 지난

20일 고열과 의식 저하로 결핵성 뇌막염과
함께 폐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어 이란성 쌍둥이도 다음 날인 21일

선천성 결핵으로 진단됐다. 쌍둥이는 지난
5월19일 30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다.

산모의 경우 분만을 위해 지난 5월16일
전남대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결핵을 의심
할 만한 증상이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인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이번 결핵 감염
사례에 대해 선천성 결핵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원에서 열린 정례 브리
핑에 참석해 “임신부가 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거기서 태어난 쌍둥이 아이들이 대

부분 산모하고는 분리돼 입원한 상황”이라
며 “중환자실이나 인큐베이터에 있으면서
지냈기 때문에 엄마로부터의 노출보다는
선천성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전문가들
이 좀 더 무게를 두고 (방역당국도) 선천
성 결핵 가능성을 보고 현재 조치를 취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질병 결핵조사과가 광주 현지에 급
파돼 광주시와 공동 조사 및 대응을 진행
하고 있다.

선천성 결핵은 결핵에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나 또는 분만 중 신생아에게 전파돼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결핵 조사 이후 첫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
고 있다.

정 본부장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
되고 최근에 보고된 사례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드문 사례인 상황”이라며 “저
희가 결핵조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아파
침을 보는 사례로 판단된다. 과거 결핵이 좀
더 많았을 때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로 인한 결핵 전파 위
험도는 낮으나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논
의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특성(미숙아
등 입원)을 고려해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해당 환아가 출생 후 입
원해 있었던 전남대병원과 광주기독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 43명과 의료진
을 포함한 직원 109명이다.

신봉우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